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장로사(Ro-Sa Chang)** , 김유승(You-Seung Kim)***

【초록】

전통적 종이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로 중심을 옮기고 있는, 21세기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록관리학에서 전자적 형태의 기록 정보의 생산, 관리,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학 영역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록관리학 관련 5개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성과 중,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은 총 99건이었으며,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선호한 주제영역은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기록관리학, 정보학, 연구동향

【ABSTRACT】

Since the paradigm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as been shifted toward the digital records world, information science, which is related to electronic record information's creation, management, preservation, and usage, has become increasingly significant. In the context, this article studies a research trend of information science i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field. For the study, 99 concerned articles from five academic journal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08 are

analyzed. As a result, the article finds out several research trends in this field, including researchers' preferred research subjects.

【Keyword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rend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현대적 기록관리로의 제도적 발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기록관리학이라는 독립적 학문 영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제도의 구축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기록관리 분야의 학술 연구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9년 국내 대학교육기관으로서 최초로 목포대학교가 기록관리학 대학원 협동과정을 개설하게 되었고, 이후 전국 20개 학부·대학원에 기록관리학 과정이 단독, 협동과정, 세부전공으로 설치되었다.¹⁾

대학에서의 기록관리학과 설치와 더불어 관련 학술단체로서 1999년 '한국기록관리학회'와 2000년 '한국기록학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기록학회'는 2000년부터 학

* 이 연구는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rschang120@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yus@cau.ac.kr) (공동저자)

회지 『기록학연구』를 발간하였고,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01년부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관련 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2000년경부터 기록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었고, 2009년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록관리학은 학제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 영역과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애초에 전자적으로 생산되거나, 네트워크에 기반한 기록물들, 그리고 전통적 매체로 생성되었으나 후에 전자화된 기록물들의 폭발적 증가로 대변되는 21세기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록관리학에서 전자기록 정보의 생산, 관리,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학 영역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전자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기록관리학 영역 안의 정보학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록관리학 연구 성과 중,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적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2 연구 방법과 제한점

실질적으로 기록관리학계의 연구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기록관리학과 관련된 학회지인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이 되는 학회지들을 연도별 연구논문의 추이, 연도별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추이, 연도별·연구자별·학회지별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

로 한 기록관리학의 주제별 연구동향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학 전 영역이 아닌 전자기록물과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영역 내 정보학 연구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연구 대상을 제한한다. 첫째, 기록관리학과 관련된 사학,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들은 제외하였으며, 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주제영역 중에서도 전자기록물과 정보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보학 이외의 다른 주제 영역과 관련된 논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세분화한 정보학 주제 분야는 연구자마다 분류기준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 변동단계의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1.3 선행연구

국내외적으로 지금까지 수행된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국내 연구 성과는 크게 기록관리학의 지적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와 기록관리학 연구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지적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의 초기 연구로서, 정연경(2003)은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2002)의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와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2006)의 Hand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을 분석하여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를 제시하고 한국의 기록관리학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를 기본 지식, 핵심 지식, 보충 지식, 실무 지식, 연구 지식의 5개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보존, 전자기록물 관리, 컴퓨터 기술의 적용, 기록물 서비스와 홍보 관련 교과목의 설정, 학제적 교과목의 개발 등을 주요 사안으로 제시하였다.

1) 2009년 2월 현재, 학부·대학원에 단독, 협동과정, 세부전공으로 기록관리학 과정을 설치한 20여 개 학교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설립년도): 경남대학교(2000), 경북대학교(2008), 공주대학교(2000), 덕성여자대학교(2009년 3월 신설 예정), 명지대학교(2000), 목포대학교(1999), 부산대학교(2000), 서울대학교(2001), 숙명여자대학교(2006), 연세대학교(2001), 원광대학교(2000), 이화여자대학교(2000), 전북대학교(2004), 중부대학교(2007), 중앙대학교(2006), 충남대학교(2000), 한국의국어대학교(2001), 한남대학교(2000), 한성대학교(2000), 한양대학교(2007).

이후 김희정(2005)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발표된 국내와 미국의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은 기록관리학 관련 법제도·정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기록물 관리 연구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방향 및 연구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은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인 문헌 클러스터링과 문헌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학 영역의 핵심적인 주제 영역은 전자기록물 관리·디지털보존, 기록관리 정책·제도, 기록물 기술/목록, 기록관리학 영역/교육이었으며, 시기별 분석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학 연구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김희정(2006)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에 대하여 수행된 총 12건의 연구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의 기록관리학 연구들은 주로 기록물과 기록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전자기록물의 급증과 함께 그 연구영역이 정보시스템 및 사회 환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파생되는 여러 전문적 정보기술 주제와 함께 학제적 연구주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주요 해외 선행연구는 두 가지로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와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주요 연구영역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Cox(1987)는 1901년부터 1987년까지의 80여 년의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수행된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을 분석·평가하였다. 1901년부터 1936년까지를 기록관리학 태동기, 1936년부터 1972년까지를 기록관리학 형성기, 1972

년부터 1986년까지를 기록관리학 성숙기로 구분하였으며, 기록관리학 관련 주된 연구영역을 정리하였다.

Brichford(1988)는 1957년, 1967년, 1977년, 1986년 학술지 『American Archivist』 수록된 103편의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기록관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진본성, 평가, 정리, 기술, 물리적 보존, 설립과 활용의 6개로 제시하였다.

Gilliland-Swetland(1992)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6개 학술지²⁾ 대상으로 136개의 논문들을 인용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을 문헌정보학, 기록관 및 기록관리, 컴퓨터, 역사,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Couture(2001)는 문헌조사와 50여 명의 기록관리학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학 영역을 여러 개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을 사회·역사·법제도, 기록관 기능과 운영, 정보기술과 전자기록물,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Couture와 Ducharme(2005)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출간된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기록관리학 주요 연구영역을 기록관리학의 목적, 기록관과 사회, 기록관과 기록관리학의 역사, 기록물 기능,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 경영, 기술, 매체와 기록관 유형, 기록관 환경, 기록관과 관련된 그 외 세부주제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이외에 새롭게 출현하는 기록관리학 주제영역들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주요 연구영역을 분석한 연구로서, Hedstrom(1991)은 아카이비스트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전자기록물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과 조직구간의 관계', '정보기술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는 기록물의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 및 접근', '전자기록물 시대의 기록관리 업무의 변화', '정보기술 개발과 도입에서 아카이비스트의 역할' 등 5가지 연구영역을 제시한 바 있다.

National Historical Publication and Records Commission(1991)은³⁾ 전자기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워킹그룹을 설립하였으며, 전자기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전자기

2) Gilliland-Swetland(1992)가 선정한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6개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American Archivist, Archivaria, Midwestern Archivist, Prologue, Provenance, Public Historian.

3) 1934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NHPRC는 미국 국립기록청(NARA) 산하의 법정 조직으로서, 깃털펜에서부터 컴퓨터에 이르는 모든 매체로 생산된 미국 역사관련 도큐먼트 자원의 보존, 출판, 이용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cited 2009. 2. 10]. <<http://www.archives.gov/nhprc/>>.

록물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주요 연구영역을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데이터 정의', '정보기록 관리 정책', '전자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 '전자기록관리 프로그램 실현에 있어서의 장애물', '정보기술 및 전자레코드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지식' 등 10가지로 정의하였다.

Cox(1994)는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주요 연구영역을 '전자기록물 운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교육과 실무적 훈련의 개발',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한 고용주 요구의 증가', '전자기록물 운영에 관한 아카이브적 관점', '조직 내에서의 전자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정보기술에 대한 아키비스트들의 태도', '기록관 전문직과 정보기술'의 6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Bearman과 Trant(1997)는 전자기록물 운영과 관련된 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주요 연구영역을 전자기록물의 기술, 전자기록관리 정책, 레코드 생성에 대한 인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메타데이터·조직구조에 대한 의존도, 장기간의 전자기록물 유지, 전자정보에 대한 이용자 요구 및 검색의 6개로 규정하였다.

Cox(2000)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4종⁴⁾ 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출간된 전자기록관리 관련 논문 61편을 중심으로 하여 인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록관리학 영역과 관련된 배경주제군을 기록학 및 기록관리, 문헌정보학, 경영학, 교육학, 법학, 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상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해외에서는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밝힌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이란 용어가 보편화되어 사용하게 된 시점은 1960년대부터이며,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정보학에 대한 정의를 내려왔다. 가장 널리 통용되

고 있는 정의로 Borko(1968)는 정보학을 "수학, 시스템 설계, 정보처리 개념 등의 응용을 연구하는 이론적인 학문인 동시에 사서, 논리학자, 언어학자, 공학자, 수학자, 행동과학자들의 연구와 개발한 기술을 포괄하는 응용학문이며 학제적 성격을 띤 학문"이라 하였다. Machlup과 Mansfield(1983)는 정보학을 "정보를 다루고 있는 또는 정보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학문에서 정보와 관련된 부분만을 모아 연결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정보학의 학제적 특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문헌정보학 측면에서 볼 때 전산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전해왔다(서은경 1997, 270).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이란 명칭 역시 기존의 도서관학에 정보학이 융합되어 탄생되게 된 것이다. 즉, 사회 발전과 더불어 지식정보의 확산, 기록매체의 변화로 인해 문헌정보학에서 정보학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록관리학 영역에서도 정보학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CD-Rom에서 웹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학과 정보학의 상관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이미 기업 및 정부 기관들에서 애초에 전자적으로 생성되었거나 차후 전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들이 전통적 매체기반의 기록물들을 점차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2006년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기록관리의 원칙만을 제시했던 이전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의무화하였다(김유승 2008, 11).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는 학제 응용과 학으로서의 기록관리학에서 전자기록물과 정보기술을 주제로 하는 정보학 영역은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내 정보학 영역을 전자기록물의 생산/보존/관리/활용 등의 '전자기록물' 영역과 웹사이트 설계/구축, 이용자 인터페이스, 콘텐츠 개발/관리,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정보기술'

4) Cox(2000)가 선정한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4종은 다음과 같다: American Archivist, Archival Issue, Archivaria, Provenance.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외 기록관리학 내 정보학 영역으로는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웹 아카이빙, 웹 기록물 조직, 지식관리시스템, 정보유통, 계량정보학 등이 포함된다.

3. 연구동향 분석

3.1 분석대상

실질적으로 기록관리학계의 연구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관리학과 관계가 깊은 문헌정보학계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를 통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에 발표된 연구논문 총 1,555편⁵⁾ 중, 전자기록물과 정보기술을 주제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논문 99편을 중점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5개 학회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1970년에 창간되어, 2008년까지 제 42권 제4호가 발간된 상태로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1972년에 창간되어, 2008년까지 제19권 제2호가 발간된 상태로 반년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정보관리학회지』는 1984년에 창간되었으며, 2008년까지 제25권 제4호가 발간된 상태로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2000년 창간된 『기록학연구』는 2008년까지 제18호가 발간된 상태로 반년간 발간되고 있으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01년에 창간되어, 2008년까지 제8권 제2호가 발간된 상태로 반년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는 2001년에, 그리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2004년에 각각 한국학술진흥재단(Korea Research Foundation) 등재 학술지에 선정되었고,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어 있다.

3.2 연구논문 추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대별로 본 연구논문의 추이는 <표 2>와 같다. 이 기간 동안 5개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은 총 1,555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록학연구』 172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4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편, 『정보관리학회지』 485편으로 집계되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의 수치가 높은 것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반년간 발간되는데 반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는 계간으로 발간되기 때문이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의 경우 발행주기가 연간에서 반년간으로 다시 계간으로 변화함으로써 2000년 이후에 연구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반년간에서 연3회로, 『기록학연구』는 반년간에서 연4회간기로 간행될 예정인데, 전국 20개 대학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기록관리학 인적자원의 증대와 함께, 연구 성과의 질적·양적 증가가 기대된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전자기록물과 정보기술을 주제로 한 정보학 영역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추이는 <표 3>과 같다. 이 기간 동안 5개 학회지에 발표된 정

<표 1> 분석대상 학회지의 현황

(창간년도 순)

학회	학회지명	창간 년도	간기	학진 등재년도	비고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0	계간	2001	• '도서관'학에서 개명(1993) • 간기: 연간(1970-1988) → 반년간(1989-1995) → 계간(1996-)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72	반년간	2004	• '한국비블리아'에서 개명(2005) • 간기: 연간(1997-1999) → 반년간(2000-2008) → 연3회 예정(2009)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1984	계간	2001	• 간기: 연간(1984) → 반년간(1985-1997) → 연3회(1998) → 계간(1999-)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2000	반년간	등재후보 학술지	• 간기: 반년간(2000-2008) → 계간 예정(2009)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1	반년간	등재후보 학술지	

5) 대상 학술지에 수록된 서평, 발표문, 발간사, 문헌목록, 편집규정, 휘보 등은 제외하였다.

〈표 2〉 연도별 총 연구논문의 추이

(단위: 편)

학회지/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기록학연구	16	22	23	19	23	15	19	18	17	17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18	18	16	16	17	12	16	20	13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	48	59	56	59	74	75	70	75	55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	19	27	24	25	25	30	22	20	211
정보관리학회지	44	46	46	50	57	59	61	62	60	485
계	117	153	173	165	180	190	197	188	192	1,555

〈표 3〉 연도별 정보학 영역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추이

(단위: 편)

학회지/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기록학연구	3	2	5	2	2	2	6	6	3	3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2	2	3	1	6	1	4	5	2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1	—	—	3	3	—	3	2	1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1	—	—	2	3	3	1	3	13
정보관리학회지	—	2	—	2	3	5	1	3	3	19
계	3	8	7	7	11	19	11	17	16	99

보학 영역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은 총 99편으로, 『기록학연구』 31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2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편, 『정보관리학회지』 19편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00년 문헌정보학 관련 3개 학술지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가 2004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합계를 살펴보면, 2000년 3편, 2001년 8편, 2002년과 2003년 각각 7편, 2004년 11편, 2005년 19편, 2006년 11편, 2007년 17편, 2008년 16편으로 정보학 영역 기록관리학 연구 논문들은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띄는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5개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연도별 전체 논문 수가 2001년 153개에서 2008년 192개로 약 1.25배 증가한 반면, 정

보학 영역을 다룬 기록물관리학 논문 수는 2배로 증가하여 한층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 신분 및 증감추이는 〈표 4〉와 같다. 공저자를 개별적으로 각각 계산하였고, 연도가 흐름에 따라 한 저자의 신분이 변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신분에 맞추어 연도별로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저자가 두 가지의 직종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각각 계산하였기 때문에 전체 논문수와의 차이가 있다. 기타에 속하는 연구자 집단에는 연구원의 사무국장, 연구원, 전문위원, 장교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연구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교수(강사) 집단이 6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집단이 29편으로 21.2%,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과 석·박사 학생 집단이 22편으로 16.1%를 차지하고

〈표 4〉 연도별 연구자의 신분 및 증감추이

단위: 편(%)

연구자/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교수(강사)	1	4	5	5	11	10	6	12	10	64(46.7)
학생	1	—	1	1	—	2	3	3	11	22(16.1)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	2	2	1	2	4	3	5	3	22(16.1)
기타	2	3	1	1	3	5	3	5	6	29(21.2)
계(%)	4(2.9)	9(6.6)	9(6.6)	8(5.8)	16(11.7)	21(15.3)	15(10.9)	25(18.2)	30(21.9)	137(100.1)

있음을 알 수 있다.

학회 운영 및 연구 활동의 주구성원인 교수(강사) 집단이 64편(46.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과 석·박사 학생 집단의 비율은 16.1%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록관리학은 이론과 실무의 균형 잡힌 상호보완과 교류를 핵심으로 하는 응용과학으로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의 학술적 연구 활동이 좀 더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의 학회지 논문투고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석·박사 학생들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학회지별 연구자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것이며, 여기서의 계의 백분율은 개별 학술지로만 산출한 것이다. 〈표 5〉는 〈표 4〉와 마찬가지로 공저자를 개별적으로 각각 계산하였고, 저자가 두 가지의 직종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각각 계산하였기 때문에 전체 논문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표 5〉는 학회지별 연구자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한 연구자가 학회지에 2번 이상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4〉의 논문수의 수치와 같지 않다.

학회지별로 연구자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기록학연구』는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이 9편(33.3%)으로 가장 높으며, 석·박사 학생과 기타 집단이 각각 7편(25.9%), 교수(강사) 집단이 4편(1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석·박사 학생 집단이 10편(29.4%)로 가장 높고, 교수(강사) 집단이 9편(26.5%),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이 8편(23.5%), 기타 집단이 7편(20.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교수(강사) 집단의 비율이

14편(60.9%)로 가장 높으며, 기타 집단이 5편(21.7%),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이 3편(13.0%), 석·박사 학생 집단이 1편(4.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교수(강사) 집단이 10편(58.8%)으로 가장 높고, 기타 집단이 4편(23.5%), 석·박사 학생 집단이 2편(11.8%),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이 각각 1편(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관리학회지』는 교수(강사) 집단이 16편(59.3%)로 가장 높고,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과 기타 집단이 각각 5편(18.5%), 석·박사 학생 집단이 1편(3.7%) 순으로 집계되었다. 즉,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연구자의 구성 비율이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5개 모든 학회지에서 연구자의 집단 중 교수(강사) 집단이 53편(41.4%)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석·박사 학생 집단의 비율이 21편(16.4%)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의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

〈표 6〉은 학회지별 연구논문 당 공동연구자의 수를 분석한 것이며, 여기서의 계의 백분율은 개별 학회지별로만 산출한 것이다.

논문 당 공동연구자의 수를 살펴보면, 1인 단독연구는 72.7%이며, 2인 공동연구가 21.2%, 3인 연구와 4인 이상 연구가 각각 3.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학회지에 발표된 각 논문 당 공동연구자의 수를 살펴보면, 『기록학연구』는 1인 단독연구가 29편(93.5%)에 이르고, 2인 연구가 2편(6.5%)이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1인 단독연구 17편(70.8%), 2인 공동연구 6편(25.0%), 4인 이상 연구 1편(4.2%)임을 알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1인 단독연구가 7편(58.3%), 2인 공동연구와 4인 공동연구가 각각 2편(16.7%), 3인 공동연구 1편(8.3%)인

〈표 5〉 학회지별 연구자의 구성 비율

단위: 편(%)

직종/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총계(%)
교수(강사)	4(14.8)	9(26.5)	14(60.9)	10(58.8)	16(59.3)	53(41.4)
학생	7(25.9)	10(29.4)	1(4.3)	2(11.8)	1(3.7)	21(16.4)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9(33.3)	8(23.5)	3(13.0)	1(5.9)	5(18.5)	26(20.3)
기타	7(25.9)	7(20.6)	5(21.7)	4(23.5)	5(18.5)	28(21.9)
계(%)	27(99.9)	34(100.0)	23(99.9)	17(100.0)	27(100.0)	128(100.0)

〈표 6〉 학회지별 연구논문 당 공동연구자의 수

						단위: 편(%)
저자수/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총계(%)
1인	29 (93.5)	17(70.8)	7(58.3)	9(69.2)	10(52.6)	72(72.7)
2인	2(6.5)	6(25.0)	2(16.7)	4(30.8)	7(36.8)	21(21.2)
3인	—	—	1(8.3)	—	2(10.5)	3(3.0)
4인 이상	—	1(4.2)	2(16.7)	—	—	3(3.0)
계(%)	31(100.0)	24(100.0)	12(100.0)	13(100.0)	19(99.9)	99(99.9)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1인 단독연구가 9편(69.2%)에 달하고, 2인 공동연구가 4편(30.8%)이며, 『정보관리학회지』는 1인 단독연구가 10편(52.6%), 2인 공동연구가 7편(36.8%), 3인 공동연구가 2편(10.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1인 단독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어진 학회지는 『기록학연구』이며,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학회지는 『정보관리학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학회지를 발간하는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 구성원간의 학문적 배경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인문학 배경의 연구자들이 1인 단독 연구를 많이 수행하는 반면,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는 문헌정보학, 특히 정보학 영역에서 공동연구는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이는 〈표 5〉를 바탕으로 학회지별 연구자 중 교수(강사)와 석·박사 학생의 전공을 분석한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록학연구』는 연구자의 전공 중 기록관리학이 63.6%로 가장 높은 반면, 나머지 학회지들에서는 문헌정보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구체적 살펴보면, 『한국기록관리학회지』52.6%, 『한국문헌정보학회지』73.3%, 『한국비블리아학회지』41.7%, 『정보관리학회지』76.5%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록관리학 내 한정된 연구영역에서 나타나는 연구자 집단의 특성일 뿐, 연구 결과물의 우월을 가르는 척도는 결코 아니다. 학제적 성격이 강한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기존 학문간 이해와 협력은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어느 학제 학문보다도 활발한 학제간 교류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3.3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대상 99편의 논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주제영역에 의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연도별, 연구자별, 학회지별로 파악하기 위해 분석대상 99편의 논문에 수록된 키워드 중 중요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 빈도수에 기반하여 주제영역을 분류하고자 한다.

〈표 7〉 학회지별 연구자의 전공

						단위: 편(%)
전공/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총계(%)
문헌정보학	1(9.1)	10(52.6)	11(73.3)	5(41.7)	13(76.5)	40(54.1)
기록관리학	7(63.6)	7(36.8)	—	3(25.0)	1(5.9)	18(24.3)
소프트웨어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1(9.1)	1(5.3)	1(6.7)	2(16.7)	2(11.8)	7(9.5)
경영, 예술경영, 테크노경영	—	1(5.3)	1(6.7)	1(8.3)	—	3(4.1)
법학, 행정학	1(9.1)	—	1(6.7)	—	—	2(2.7)
고고문화 인류학	—	—	—	1(8.3)	—	1(1.4)
교육학	1(9.1)	—	—	—	—	1(1.4)
국제사무학	—	—	1(6.7)	—	—	1(1.4)
신문방송학	—	—	—	—	1(5.9)	1(1.4)
계(%)	11(100.0)	19(100.0)	15(100.1)	12(100.0)	17(100.1)	74(100.3)

중요 키워드 설정 시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키워드로 제시한 순서대로 2개의 키워드를 선정하며, 중복되는 동의어나 유사어 키워드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설정한다.

그러나 모든 연구자가 논문의 키워드를 부여할 때 중요도에 따라 키워드를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키워드를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경우, 동의어나 유사어를 배열하는 경우, 무의미하게 배열한 경우 등이 존재한다. 또한 한 논문에 부여된 키워드의 수가 2개에서 10개 이상까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만약 연구자가 제시한 키워드 2개를 무조건 중요 키워드로 선정한다면, 논문의 주제영역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중요도에 따라 논문의 키워드를 준 경우에는 그것을 중요 키워드로 채택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의 핵심내용과의 일치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하여 2개의 키워드를 설정한다.

또한 『기록학연구』는 제7호까지는 키워드가 논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도 제3권 제2호까지는 논문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학회가 창립된 지 오래 되지 않아 아직 논문의 편집규정 체계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키워드가 기재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에도 핵심내용과의 일치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하여 핵심어 2개를 설정한다.

분석대상 연구논문의 주제영역은 <표 8>과 같다. 198개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주제영역은 총 26개로 구분되어졌으며,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아카이브), 기록(물)관리시스템, 디지털 보존, OAIS 참조모형, 전자정부, 정보(기록물)공개,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 웹 아카이빙, 전자문서, EAD 주제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보존정보패키지(AIP), 시소러스, 온톨로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파일링시스템, 포맷등록시스템의 주제는 각각 한 번씩 논문의 중요 키워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연구논문의 주제영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여기서는, 개별 연구논문 중심의 좀 더 명확한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앞서 선정하였던 연구논문별 2개의 키워드에서 다시 각 1개의 핵심어를 추출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에 올 연구자별, 학회지별 추이 분석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메타데이터(15.2%), 전자기록물(13.1%),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과 정보(기록물)공개(9.1%), 기록(물)관리시스템(6.1%), 전자문서(5.1%),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와 웹 아카이빙(4.0%),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 디지털 보존, 전자정부, 정보자원 공유(지식경영, 지식관리시스템), EAD(3.0%), 디지털(정보)화, 이메일기록(전자우편문서), 저작권,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지적구조, OAIS 참조모형(2.0%) 주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보존정보패키지(AIP), 시소러스, 온톨로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파일링시스템, 포맷등록시스템의 주제는 각각 1.0%로 가장 낮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은 연구주제와 연구자 집단 간의 관계를 비교·

<표 8> 분석대상 연구논문 주제영역

주제영역	빈도	주제영역	빈도
메타데이터	35	저작권	3
전자기록물	32	정보자원 공유, 지식경영, 지식관리시스템	3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23	디지털(정보)화	2
기록(물)관리시스템	21	이메일기록, 전자우편문서	2
디지털 보존	18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2
OAIS 참조모형	10	지적구조	2
전자정부	9	데이터베이스	1
정보(기록물)공개	8	보존정보패키지(AIP)	1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	6	시소러스	1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	4	온톨로지	1
웹 아카이빙	4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1
전자문서	4	파일링시스템	1
EAD	4	포맷등록시스템	1

〈표 9〉 연도별 분석대상 연구논문 주제별 연구동향

단위: 편(%)

연구주제/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메타데이터	—	1	1	—	2	4	2	4	1	15(15.2)
전자기록물	—	1	1	1	1	3	1	4	1	13(13.1)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	2	—	—	2	2	1	—	2	9(9.1)
정보(기록물)공개	1	3	1	—	—	—	2	—	2	9(9.1)
기록(물)관리시스템	—	—	—	1	2	1	1	—	1	6(6.1)
전자문서	—	1	1	—	1	2	—	—	—	5(5.1)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	—	—	—	—	—	—	1	2	1	4(4.0)
웹 아카이빙	—	—	—	—	1	—	—	1	2	4(4.0)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	—	—	—	—	—	1	1	1	—	3(3.0)
디지털 보존	—	—	—	1	—	1	1	—	—	3(3.0)
전자정부	1	—	1	1	—	—	—	—	—	3(3.0)
정보자원 공유, 지식경영, 지식관리시스템	—	—	—	—	1	—	—	—	2	3(3.0)
EAD	—	—	1	1	—	—	—	1	—	3(3.0)
디지털(정보)화	1	—	—	—	—	1	—	—	—	2(2.0)
이메일기록, 전자우편문서	—	—	—	—	1	—	—	1	—	2(2.0)
저작권	—	—	—	—	—	1	—	1	—	2(2.0)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	—	—	—	—	1	—	—	1	2(2.0)
지적구조	—	—	—	—	—	1	—	1	—	2(2.0)
OAIS 참조모형	—	—	—	2	—	—	—	—	—	2(2.0)
데이터베이스	—	—	—	—	—	—	—	—	1	1(1.0)
보존정보패키지(AIP)	—	—	—	—	—	—	1	—	—	1(1.0)
시소러스	—	—	—	—	—	—	—	—	1	1(1.0)
온톨로지	—	—	—	—	—	—	—	—	1	1(1.0)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	—	1	—	—	—	—	—	—	1(1.0)
파일링시스템	—	—	—	—	—	1	—	—	—	1(1.0)
포맷등록시스템	—	—	—	—	—	—	—	1	—	1(1.0)
계	3	8	7	7	11	19	11	17	16	99(100.1)

〈표 10〉 연구자별 연구주제의 분포

단위: 편(%)

연구주제/연구자 집단	교수(강사)	학생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기타	계(%)
전자기록물	13	2	2	6	23(16.8)
메타데이터	13	3	1	2	19(13.9)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9	1	2	—	12(8.8)
정보(기록물)공개	3	3	—	4	10(7.3)
기록(물)관리시스템	—	—	3	4	7(5.1)
시소러스	1	5	1	—	7(5.1)
전자문서	2	1	1	3	7(5.1)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	1	1	3	—	5(5.1)
웹 아카이빙	3	—	—	2	5(3.6)
정보자원 공유, 지식경영, 지식관리시스템	3	1	—	1	5(3.6)
EAD	2	—	1	2	5(3.6)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	1	—	3	—	4(2.9)
지적구조	3	—	—	1	4(2.9)
디지털 보존	2	—	1	—	3(2.2)

저작권	2	1	—	—	3(2.2)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	—	—	3	3(2.2)
전자정부	2	—	1	—	3(2.2)
디지털(정보)화	—	—	1	1	2(1.5)
이메일기록, 전자우편문서	1	—	1	—	2(1.5)
OAIS 참조모형	—	2	—	—	2(1.5)
데이터베이스	1	—	—	—	1(0.7)
보존정보패키지(AIP)	—	—	1	—	1(0.7)
온톨로지	—	1	—	—	1(0.7)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1	—	—	—	1(0.7)
파일링시스템	1	—	—	—	1(0.7)
포맷등록시스템	—	1	—	—	1(0.7)
계(%)	64(46.7)	22(16.1)	22(16.1)	29(21.2)	137(100.1)

분석한 것이며, 공저자를 개별적으로 각각 계산하였고, 저자가 두 가지의 직종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각각 계산하였기 때문에 전체 논문수와는 차이가 있다.

분석결과, 교수(강사), 석·박사 학생,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기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선정한 연구 주제는 전자기록물이 16.8%로 1순위이며, 메타데이터가 13.9%로 2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별로 살펴보면, 교수(강사) 집단이 가장 많이 선정한 연구주제는 메타데이터와 전자기록물이 각각 13편으로써 1순위이며,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이 9편으로써 2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은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의 주제가 각각 3편으로써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집단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이론 개발이나 분석보다는 일하면서 직접 접하게 되는 실무적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주제나 이용자를 위한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주제에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박사 학생 집단은 시소러스의 주제가 5편으로써 1순위이며, 기타 집단은 전자기록물의 주제가 6편으로써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학회지별로 자주 연구되는 주제의 분포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순위별로 살펴보면, 『기록학연구』는 정보(기록물)공개 19.4%, 전자기록물과 기록(물)관리시스템 16.1%, 메타데이터 12.9%,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정부의 주제가 6.5%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는 메타데이터와 전자문서의 주제가 12.5%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전체 26개 영역 중 각각 13개와 15개 주제 영역에 걸친 연구를 발표하였다.

반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5개 주제영역만을 다

<표 11> 학회지별 연구주제의 분포

단위: 편(%)

연구주제/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계(%)
메타데이터	4(12.9)	3(12.5)	1(8.3)	1(7.7)	6(31.6)	15(15.2)
전자기록물	5(16.1)	2(8.3)	3(25.0)	1(7.7)	2(10.5)	13(13.1)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	2(8.3)	4(33.3)	1(7.7)	2(10.5)	9(9.1)
정보(기록물)공개	6(19.4)	2(8.3)	—	1(7.7)	—	9(9.1)
기록(물)관리시스템	5(16.1)	—	—	—	1(5.3)	6(6.1)
전자문서	—	3(12.5)	—	—	2(10.5)	5(5.1)
기록(정보)디지털 콘텐츠	2(6.5)	1(4.2)	—	1(7.7)	—	4(4.0)
웹 아카이빙	—	—	2(16.7)	1(7.7)	1(5.3)	4(4.0)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	1(3.2)	—	—	2(15.4)	—	3(3.0)
디지털 보존	—	—	—	1(7.7)	2(10.5)	3(3.0)
전자정부	2(6.5)	1(4.2)	—	—	—	3(3.0)
정보자원 공유, 지식경영, 지식관리시스템	—	—	—	2(15.4)	1(5.3)	3(3.0)

EAD	1(3.2)	2(8.3)	—	—	—	3(3.0)
디지털(정보)화	1(3.2)	1(4.2)	—	—	—	2(2.0)
이메일기록, 전자우편문서	1(3.2)	1(4.2)	—	—	—	2(2.0)
저작권	—	—	—	—	2(10.5)	2(2.0)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1(3.2)	1(4.2)	—	—	—	2(2.0)
지적구조	—	—	2(16.7)	—	—	2(2.0)
OAIS 참조모형	—	2(8.3)	—	—	—	2(2.0)
데이터베이스	—	1(4.2)	—	—	—	1(1.0)
보존정보패키지(AIP)	1(3.2)	—	—	—	—	1(1.0)
시소러스	—	1(4.2)	—	—	—	1(1.0)
온톨로지	—	—	—	1(7.7)	—	1(1.0)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1(3.2)	—	—	—	—	1(1.0)
파일링시스템	—	—	—	1(7.7)	—	1(1.0)
포맷등록시스템	—	1(4.2)	—	—	—	1(1.0)
계(%)	31(99.9)	24(100.1)	12(100.0)	13(100.1)	19(100.0)	99(99.7)

루고 있고, 특히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의 주제가 33.3%로, 연구주제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논문 편수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와 정보자원 공유(지식경영,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제가 15.4%이며,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 웹 아카이빙, 디지털 보존, 온톨로지, 파일링시스템의 9개의 주제가 각각 7.7%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관리학회지』는 31.6%로 메타데이터가 1순위 주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 10.5%로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전자문서, 디지털 보존, 저작권의 주제가 2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년 동안 대표적인 기록관리학계의 2개 학회지와 문헌정보학계의 3개 학회지에 실린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을 전자기록물과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영역 내 정보학 연구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의 기록관리학 내 정보학 영역은 크게 전자기록물의 생산/보존/관리/활용 등의 '전자기록물' 영역과 웹사이트 구축, 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정보기술' 영역으로 이해하였으며, 이외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웹 아카이빙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대상이 되는 연구논문을 연도별·연구자별·학회지별·주제별 등 다양한 측

면의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5개의 학회지에 발표된 정보학 영역 기록관리학의 총 연구논문 수는 9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대비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0%, 2001년 8.1%, 2002년과 2003년은 각각 7.1%, 2004년 11.1%, 2005년 19.2%, 2006년 11.1%, 2007년 17.2%, 2008년 16.2%로 나타났다. 즉,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는 전체 연구 논문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교수(강사) 집단이 64편(46.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집단과 석·박사 학생 집단이 22편으로 비교적 낮은 16.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의 현장 검증과 현장 실무에 기반한 이론의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기록연구사를 비롯한 실무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 참여가 요망되는 바이다. 또한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의 학회지 논문을 투고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석·박사 학생들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선호한 주제영역은 메타데이터(15.2%), 전자기록물(13.1%),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과 정보(기록물)공개(9.1%), 기록(물)관리시스템(6.1%), 전자문서(5.1%),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와 웹 아카이빙(4.0%), 기록물 전거제어(시스템), 디지털 보존, 전자정부, 정보자원 공유(지식경영, 지식관리시스템), EAD(3.0%), 디지털(정보)화, 이메일기록(전자우편문서), 저작권, 전자기록관

리시스템(ERMS), 지적구조, OAIS 참조모형(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다양성은 기록관리학의 강한 학제적 성격의 반증이라 할 수도 있으며, 기록관리학 내의 여타 관련 학문 영역들의 연구동향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학의 다양한 학제 영역 중 정보학에 국한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기록관리학 연구의 이해 증진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제 영역에 대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기록관리학과 정보학의 좀 더 긴밀한 학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문헌】

김유승. 20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5-25.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_____.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 269-291.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오세훈, 이두영. 2005. 우리나라의 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167-189.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87-310.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정연경. 2003.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34-51.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최정태. 2000. 기록관리학, 그 교육의 향방 - 신설 9개 대학원 교육과정을 보면서. 『기록학연구』, 2: 169-193.

_____. 2006.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_____, 윤송원. 2001.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95-129.

한미경, 노영희. 2007. 『기록관리학의 이해』. 경기도: 진리탐구.

한상완 외. 2002.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관리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 서울: 한국기록관리학과·협회.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 2006. "Hand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 [cited 2009. 2. 13]. <<http://www.certifiedarchivists.org/html/pdf/handbook2006.pdf>>.

Bearman, David. and Trant, Jennifer. 1997. Electronic Records Research Working Meeting, May 28-30, 1997: A Report from the Archives Community. *D-Lib Magazine*. [cited 2008. 11. 2]. <<http://www.dlib.org/dlib/july97/07bearman.html>>.

Borko, H. 1968. Information Science. *American Documentation*, 13(1): 3-5.

Brichford, Maynard. 1988. Who Are The Archivists and What Do They Do? *American Archivist*, 51: 106-110.

Buck, Solon T. 1941. The Training of American Archivists. *The American Archivist*, 4(2): 84-90.

Couture, Carol. 2001. Education and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General Tendencies. *Archival Science*, 1(2): 157-182.

_____, and Ducharme, Daniel. 2005.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 41-67.

Cox, Richard. J. 1987.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Expanding Horizons and Continuing Needs, 1901-1987. *American Archivist*, 50(1): 306-323.

_____. 1994. *The First Generation of Electronic Records Archivists in the United States*. Binghamton, NY.

_____. 2000. Searching for Authority: Archivists and Electronic Records in the New World at the Fin-de-Siecle. *First Monday*, 5(1). [cited

- 2008, 11. 2].
<http://www.firstmonday.org/issues/issues5_1/cox/index.html>.
- Gilliland-Swetland, Anne. J. 1992. Archivy and the Computer: A Citation Analysis of North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Archival Issues*, 17(2): 95-112.
- Hedstrom, Margaret. 1991. Understanding Electronic Incunabula: A Framework for Research on Electronic Records. *American Archivist*, 54: 334-354.
- Muchlup, F. and Mansfield, U. 1983. *The Study of Information: Interdisciplinary Messages*. New York: Wiley.
- National Historical Publications and Records Commission (NHPRC). 1991. Research Issues in Electronic Records: Toward a national Agenda. *Bulletin on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8: 19-21.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2.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cited 2009. 2. 15].
<http://www.archivists.org/prof-education/ed_guidelines.asp>.